

자연과 합일된 풍류문인의 고향

중앙박물관 유적답사(1)—양사언의 자취를 따라

우리학교에 박물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역사유물을 보관 관리하는 작업에서부터 새로운 문화재를 발견하는 것까지 중앙박물관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중앙박물관 광릉캠퍼스 주변유적 답사문을 5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이 연 의
(국문과 박사2기·중앙박물관)

우리 박물관은 1955년 10월에 개관한 이래 여러 차례의 발굴 활동과 수많은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서 지금의 박물관으로 성장해 왔다. 이에 우리 박물관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 경희대학교 주변 지역의 문화유적을 조사·정리하고 유물의 보존과 관리, 교육에 힘쓰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문화유적을 정리하고 잘 보존하는 데

양사언은 증종 35년(1540)에 진사가 되고 30세 때인 명종 원년(1546)에 문과에 급제한 후에 부도 내의상 6년을 제의하고는 평생을 관직에 종사했다. 등과하는 즉시로 '운정기(雲亭記)'를 저술해서 명성을 떨쳤고 모두 일곱 고을을 다스렸는데 간 곳마다 선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업

으로 나있는 산세가 절경이다. 이 정자의 건립 연대는 조선 전기의 16세기 초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금수정은 한국전쟁 당시 자취도 없이 소실되어 창조석만 남아있던 것을 1989년 포천군에서 복원하였다.

금수정 앞에는 널리 알려진 양사언의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피외로다. 오르기도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피만 높다 하더라'가 새겨진 시비가 있다.

그러므로 금수정에서는 양사언의 풍류 글씨, 그리고 문학과

한 복판의 바위에 '경도(瓊島)'가 새겨져 있다. 두 글자가 새겨진 넓이는 대략 2m로 글씨의 한 획의 넓이가 약 10cm에 가깝다. 그리고 글씨가 새겨진 깊이는 약 1.5~2.5cm정도 된다. 경도는 붉고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뜻이다. 박목월의 시에 '산도화'에 보면 보라빛 석산이 나온다. 이것은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청산'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상적인 공간을 표상하는 것이다. 양사언이 새긴 '경도(瓊島)'도 아마 동일한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글씨를 탁본하면서 그 당시 우리

금수정의 시비 '태산이...'는 그의 작품 포천 곳곳에 양사언의 흔적 남아



관·답사팀 여를 포천으로 유적답사를 떠난 중앙박물관

기여하며 문화유적을 토대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박물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박물관은 이번 하절기에 광릉 주변과 포천 일대에 남아있는 유적을 조사하였다. 답사는 후삼국 시대 궁예의 유적과 조선 중기의 문인인 양사언의 유적, 그리고 사원과 서원, 조선 시대의 능, 분단 유적 등을 중심으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양사언 관련 유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양사언은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응봉(應鵬), 호는 봉래(蓬萊), 완구(完邱), 창해(滄海), 해객(海客) 등이다.

적이 두드러진 반면에 본래 산수를 즐기는 요산요수(樂山樂水)의 대가답게 간 곳마다 시가 흘러 나오고 지나는 곳마다 풍류의 흔적을 남겼다.

포천에는 양사언이 풍류를 즐기던 금수정이 있다. 금수정은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에 영평천의 수면에서 약 8m되는 절벽위 평평한 대지에 위치해 있다. 영평천으로 둘러싸인 옛 영평현의 구읍지와 인접해 있던 금수정은 영평 8경의 하나로 손꼽히던 정자이기도 했다.

주위에는 창옥병을 비롯해서 준암, 연화암, 동천석문 등 기승지가 펼쳐져 있어 옛부터 시인, 묵객들이 이 정자를 찾아 시화와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금수정에서 앞을 바라보면 우선 영평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

삶의 태도를 한 번에 집할 수 있는 셈이다.

금수정의 현판에 모여진 글씨를 비롯하여 양사언의 글씨는 많은 곳에 남아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봉래 양사언, 풍고 양사준, 청계 양사기 3형제는 모두 문장이 뛰어나고 시에 능하며 필재도 출중하여 당시 포천의 삼재로 소문이 나 있었다. 특히 봉래는 초서를 잘 써서 이조 전기의 4대 서예가로 불리웠다. 저서로 남긴 '봉래시집' 한 권에는 사준, 사기의 시가 부록으로 담겨 규장각 도서실에 현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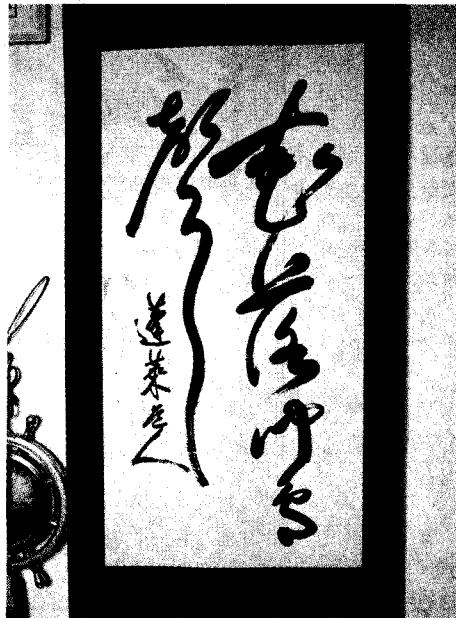
포천에도 양사언의 글씨를 볼 수 있는 유품들이 많이 남아있다. 먼저 금수정 약 10m 위의 바위에는 '취대(翠臺)'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냇가

선현들이 누린 풍류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자연에서 우주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우리 선현들은 자연을 찾고 마음에 새겼던 것이다.

'경도(瓊島)'의 근처에는 '蓬萊客'이라고 초서로 새겨진 바위가 있다. 봉래는 '경도(瓊島)'라고 새긴 바위 옆에 자신의 자취를 남긴 것이다.

또한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백운동 계곡에는 선유담이 있다. 여기에도 바위에 선유담이라고 새긴 양사언의 글씨가 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신선이 놀던 자리라고 한다.

양사언은 임진왜란 때 원병이 나왔다가 이 곳에 '선유담'이란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다 서를 잘 써서 이조 전기에 4대 서예가로 불리웠

이 선유담의 글씨체는 僊遊潭을 전서로 새겨 놓았다. 통상적으로는 선유담을 仙遊潭이라고 쓰는데 仙은 僊자와 동자에 속하므로 僊遊潭으로 바꾸어 전서로 새겨놓아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양사언은 전쟁의 격전지를 뒤로 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래적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바위에 '선유담'을 새겼을 것이다.

봉래는 智陞(안변군 서곡면 능골에 있는 翼祖道尊) 화재사건의 책임을 지고 해남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겨우 귀양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오자 할 때 발병하여 적소에서 세상을 떠나니 이때 나이는 68세이고 선조 17년(1584)이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봉래는 비자(飛字) 한자를 크게 써 놓고 우화이동선(羽化而登仙)했고 그래서 포천군 이동면 길명리에 있는 묘소에는 시신이 없이 봉래의 유품만을 매장했다고 한다. 그 때 새겼다고 하는 비자를 지금도 그의 종손인 양재옹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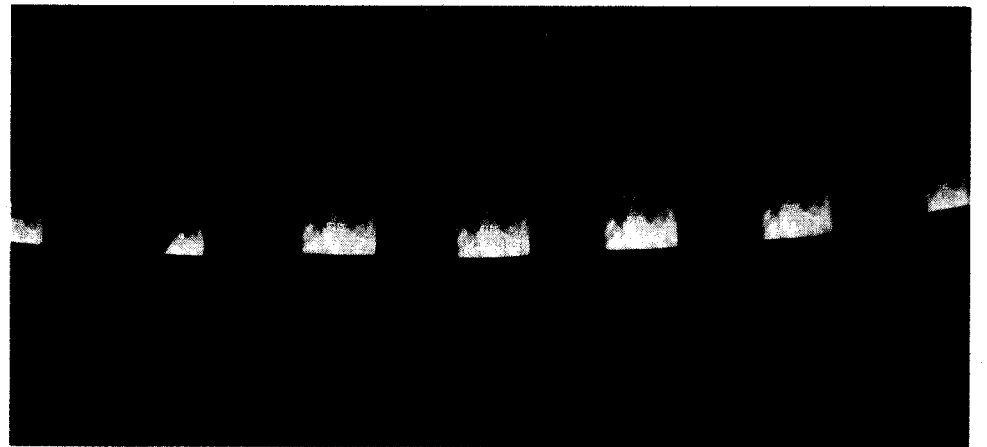
양사언의 집터는 현재 12대 손인 양문적씨가 살고 있는 집 앞의 밭이다. 밭에는 양사언의 집에서 쓰던 절구가 남아있다.

또한 포천군 이동면 길명리에는 건평 6평의 규모로 지어진 길명사(吉明祠)가 있다. 이것은 청주양씨 봉래 양사언 선생을 봉안한 곳이다. 이것은 포천 유림과 본손 문중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1988년도 착공하여 본전만을 축조하였는데 지금은 완공되어 있다.

그리고 포천군 이동면 길명리에는 양사언의 묘가 있다. 양사언 선생의 묘는 봉분하단에는 자연석, 향기 시멘트 다짐으로 3단의 호석(護石)을 둘렀으며 봉분의 높이는 1.5m, 둘레는 16.2m이다. 묘앞에는 비두에 연화문이 조각된 묘비와 상석·향로석 그리고 좌우에는 동자문인석·망주석 등의 석물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선배님 요즘 뭐하세요 -두번째 육근병 동문

후배들 가르치고 싶다



▲육근병 동문의 작품

예술가, 민초들에게 즐거움 줘야

92년 우리나라 미술계는 하나의 큰 사건을 맞이했다. 독일 카셀도큐멘타(미술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육근병동문이 초대되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사범대 미술교육학과 78학번인 육근병동문은 서울, 동경, 함부르크 등 세계 각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뉴욕전시회로 인해 미국에 체류중이다.

이번 인터뷰는 미교과의 전주희(95)양과 함께 참여하였다. (편집자)

전주희(전): 예술가에게 성취감이란 무엇이며 그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육근병(육): 나에게 있어 성취감이라 함은 선택과 동시에 책임 또한 부여된다. 그래서 나는 성취감을 느끼기 이전에 내가 할 본질을 생각한다. 또한 이 성취감에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소중하다.

오경란(오): 작품활동에 있어 철학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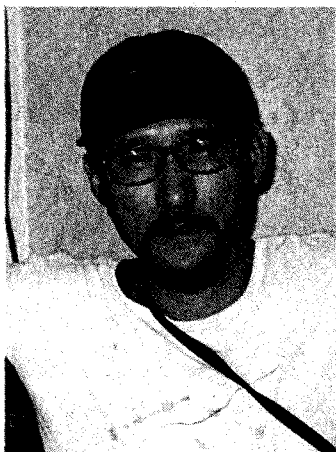
육: 작품활동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민초(民草)이다. 흔히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망각하곤 한다. 예술가는 어찌까지나 민초들에게 있어 유희적 즐거움을 선사해 주어야 한다.

이택근(이): 그렇다면 상류층에 대한 배려는 없는가?

육: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도 민초의 일부 분이다. (그들은 아니라고 우길지는 몰라도)

오: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교이외는 동아리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대학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육: 나는 경희대를 삼수로 들어왔다.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술을 하는 틈틈이 다



른일에 열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룹사운드(ox-yzen)를 조직한 것이다.

나는 그룹사운드 활동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고 싶었다.

주: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 등이 부족할텐데

육: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는일도 벼차다'는 말은 단순히 핑계일 뿐이다.

자신의 생활은 자신이 꾸려 나가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없이.

이: 그러면 재학중 인상깊었던 일은 작품의 완성이었나?

육: 나의 지금 부인을 만난일이 가장 기뻐다. 부인이 나의 일을 도와주었고 그로인해 용기를 받아 더욱더 작품열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

주: 대학에서의 작품활동은 어땠는지?

육: 나는 학교의 작업실을 이용하기 보다는 내 자신의 작업실을 사용하였다.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학점 몇점을 더 따는 것 보다는 내 자신의 세계를 꾸며가고 싶었다.

오: 그것은 단체활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육: 물론 교수님한테 혼도 많이났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주: 학교에서 강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육: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강단에 서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작품활동의 문제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학교에 나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

인터뷰: 이택근 기자, 오경란 기자, 전주희(미교·1)

다음호는 신방과를 졸업한 김세환동문입니다



그녀의 외침으로 세계가 깨어났다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을

전세계에 고발한 나딘 고디머 —

한 여성의 용기어린 삶이 역사를 바꿔놓듯

여대생 여러분의 잠재력 속엔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여러분의

앞선 사고를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태평양은 여성의 꿈과 미래를

이어드립니다.

나딘 고디머(1923 ~)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정착에 대항하는 작품을 통해 인권침해 현상을 고발한 백인작가.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제2회 컬처렛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 2. 응모기간 · 96.10.21 ~ 10.31
- 3. 응모주제 · 현대 기술속에서 여성의 역할 (택일)
 - ①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② 부부 관계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③ 혼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④ 효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 ⑤ 상기의 열거된 것 외에 가정이나 가족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 4. 응모방법 · 분량 · A4용지 20매내의 분량 (200자원고지 80매 분량)
 -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 2장내의 논문요약내용 별첨
 - 논문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96년10월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여권용사진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5.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 6. 입상자 발표 · 1996년 12월 16일 개별통지
-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 8. 기타사항 · 수상자는 당사 입사시 우대
 - 수상자는 졸업때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컬처렛 모임 초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02-749-2388 ~ 9)
-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태평양